

2025년 5월 8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80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6월 14일 광화문 일대서 개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하며 다음세대 보호 외쳐…

전국 성도들 참여 호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7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4일 '다음세대를 지키는 거룩한방파제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올해 제11회째를 맞이하는 통합국민대회는 한국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성애퀴어축제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동성애퀴어축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성혁명성오염 교육,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을 반대한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는 "오늘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 혁명의 공격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며 "젠더 이데올로기의 침습한 공격에 선진국들이 무너졌다. 선진국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공격에 정복당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린 이유는 성 혁명의 파고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영적인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룩한방파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대회에 모여서 해마다 대규모 집회를 하니까 다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두려워 감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넷째로 통합국민대회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이며, 다섯째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는 방파제이며, 여섯째로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방파제"라며 "앞으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대한민국의 거룩을 넘어서, 서양의 무너져가는 기독교 국가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퀴어축제 준비위는 오는 6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15만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6월 14일 오후 시 광화문, 시청, 숭례문 일대에서 모인다. 대규모 국민대회를 통해 국가를 진동시키는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과 전국에서 지역별 동성애 축제와 차별금지법과 각종 조례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든 분들이 6월 14일 오후 1시에 다 함께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통합국민대회 취지를 설명한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는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읊롭하고 유해한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고, 동성애의 폐해와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어야 한다"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현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동성애 독재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호소했다.

특별기도 순서는 '가짜! 독소조항! 합의되지 않은!'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하여 ▲전국의 동성애퀴어축제 반대를 위하여 ▲인권정책기본법 반대 ▲태아생명 보호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 거룩한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등의 제목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행사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 흥호수 목사는 퍼레이드 코스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숭례문까지, 5월 14일 집회 장소를 신고할 예정이며, 작년 행사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행사는 김해수 청년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명서 낭독과 질의응답, 합심기도 순서로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부총회장에 증경총회장 김종훈 목사 선출

사전 등록자 없어 총회 현장서 추천받아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일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총회를 갖고 신임 목사부총회장으로 증경총회장인 김종훈 목사를 아래적으로 선출했다.

KPCA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해 목사부총회장을 다음 회기 총회장으로 추대한다. 따라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회장 선거와 다름 없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후보 접수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받았고, 증경총회장단이 이미 총회장을 역임한 김종훈 목사를 단수 추천한 것이다. 증경총회장단 측은 김 목사를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내년 회년을 맞아 KPCA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 경험이 있는 증경총회장단 중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단수 추천한 것은 김 목사가 증경총회장



신임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



신임 총회장
김경수 목사

으로서 교단의 주요 지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단법에 따라 후보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

기애 일부 총대들이 "반드시 그래야 한

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단수 추천도 문

제 없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논쟁이 됐다.

"총회의 회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

을 뽑는 것인데 너무 시급하게 추천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숙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에 따라 정회했다.

속회 후 증경총회장단은 결국 김 목사와

함께, 역시 증경총회장인 원중권 목사도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원 목사가 후

보자회를 선언하면서 김 목사를 단독 후

보로 두고 총대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153표, 반대 43표, 기권 11표

로 김 목사가 당선됐다.

신임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여러분

에게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제49회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김경수 목사(중앙노회)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김경수 목사는 앞서 소견 발표에서 "많은 이민교회들의 사역이 어렵다. 이 민자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고 한인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런 형편"이라며 "이런 가운데 KPCA는 믿음을 지키며 세속주의의 가장 거센 물결인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직전 총회장인 박태경 목사는 '회년을 준비합시다(예 25:8-12)'라는 제목으로 전한 개회예배 설교에서 "KPCA는 창립 50주년인 회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나? 이는 동시에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0회 총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김 목사는 "교단의 재정 잘 활용해 안식년을 갖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인 배문성 장로(서북남노회)가 투표 결과 찬성 218표로 선출됐다. 배 장로는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총회장님을 보필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여러 총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외한인교회들로 구성된 KPCA는 지난 2010년 서울 명성교회에서 제35회 총회를 가진 이후 15년 만에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8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등 한국에 온 선교

사들의 업적을 언급한 박 목사는 "앞으

로 KPCA 총회와 20개 노회와 지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계교회에 새로운 이

정표를 세우게 될 것을 믿는다"며 "여기

까지 현신하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

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위대한 KPCA를 만들어 갈 믿음의 동역

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는 "총회는 2026

년에 맞을 회년을 준비하고 있다. 총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총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

사를 드리며, 총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

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소망한

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순장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는 내빈인사에서 "회년을 앞두고 있는

KPCA가 한국에서 제49회 총회를 갖게

되심을 축하드린다"며 "별빛들이 모여 은

하를 이루고 빛줄기가 모여 강물을 이루

듯, 26개국에 흩어져 있는 KPCA 성도들

의 기도와 눈물, 선교와 헌신으로 영적

불빛이 밝혀질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프리미엄을 선점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반도체 배후주주거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중

일반분양 아파트 59㎡ / 84㎡ | 총 3,724세대 중 1,681세대(1BL)

분양 문의 031)8033-4979

**총 3,724세대
메마드급
브랜드 대단지**

**500만원(1호)
실 투자금 2,000만원대~**

**무제한 전매
'25년 2월부터**

**조경부분
대상 수상**
삼성물산 MOU체결
에버랜드 조경특화 적용

PRUGIO